

교회의 회복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교회생활의 회복

성경: 마 16:18, 18:17, 계 22:16, 엡 2:21-22, 3:16-21, 고전 1:9

I.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합당한 교회생활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 마 16:18, 18:17, 계 1:11, 22:16, 20.

- A. 교회생활의 회복만큼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없다.
- B. 주님의 다시 오심 이전인 현대에서 주님은 그분의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반드시 교회생활을 얻으셔야 한다.
- C. 사탄이 교회를 손상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교회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II. 교회생활은 우리를 통해 단체적인 방식으로 살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이다 — 갈 2:20, 빌 1:21상, 3:9-10.

- A. 교회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생활이다 — 골 3:4, 요일 5:11-12, 갈 2:20, 엡 3:16-17.
- B.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 나타나시는 생활이다 — 갈 2:20, 빌 1:21상.
- C.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그분은 하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연결시키고, 또한 우리를 통해 단체적인 방식으로 살아 나타나신다 — 롬 12:4-5.
- D.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시다. 교회생활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생명으로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실재화되신 것이다 — 골 3:4, 요일 5:11-12, 고전 15:45하, 고후 3:17.
- E. 교회생활을 실행하는 길은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두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침투되고 적셔질 것이다 — 롬 6:6, 갈 2:20, 골 3:4.
- F. 우리는 교회생활의 실행을 위해 변화되고 있는, 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 고후 3:18, 롬 12:2-21.
 - 1. 교회생활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침투하시고 적시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 고전 15:45하, 엡 3:16-17.
 - 2. 교회생활은 타고난 생활이 아니라 변화된 생활이다. 교회생활은 그리스도 자신께서 주관적인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 롬 12:2.
 - 3.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살아 있고 참되고 실지적인 지체들이 되어 진정한 교회생활을 실현할 것이다 — 엡 3:17, 고후 3:18.
 - 4. 우리가 변화된다면 다른 이들과 결합되고 짜이며 함께 건축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이것이 교회생활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다 — 엡 2:21-22.

III.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체험은 언제나 교회생활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오며, 또한 교회생활을 필요로 한다 — 고전 1:2, 9, 30, 2:2, 10, 5:7-8, 10:3-4, 12:12-13, 27.

- A. 그리스도를 더욱더 체험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 살 것을 더욱더 요구한다.

- B. 우리가 참되고 살아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분배되시는 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롬 8:11, 12:2-21.
- C. 하나님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모든 것으로서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 — 엡 3:16-21.
- D.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으로 취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합당한 교회생활을 요구하실 것이다. 사실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생활이 되실 것이다.

IV. 교회생활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 아래 통일되는 생활이다 — 엡 1:10, 22-23, 4:15-16.

- A.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머리에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고 계신다 — 엡 1:4, 22-23.
 - 1.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에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들을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 아래 두시는 것이다 — 엡 1:5, 10.
 - 2.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아래 통일될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머리에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실 길을 얻으신다 — 엡 1:22-23, 10.
- B.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에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고 있다 — 고전 11:3.
 - 1.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에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교회를 알 수 없다 — 엡 1:10, 22-23.
 - 2.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에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모든 일에서 머리에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 엡 4:15-16.

V. 교통은 교회생활의 실재이다 — 고전 1:9, 10:16-17, 행 2:42, 요일 1:3, 7.

- A. 이 교통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 사이의 하나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 사이의 하나를 포함한다 — 요 17:21-23, 엡 4:3.
- B.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께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상호 누림을 갖는 것이다 — 고전 1:9.
- C. 교통은 또한 믿는 이들 사이의 상호 흐름을 내포한다 — 요일 1:3, 7.
 - 1. 신약에서 교통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흐름과 우리들 서로 간의 흐름을 모두 묘사한다 — 빌 2:1.
 - 2. 우리의 영적인 교통 안에 있는 흐름은 하나(eness)와 생명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의 교통은 하나가 흐르는 것이다.
 - 3. 이 교통, 곧 이러한 상호 흐름이 교회생활의 실재이다 — 고전 1:9, 2.

VI. 교회생활은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의 연속, 곧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의 연속이다 — 요 12:23-24, 13:31-32, 17:1, 5, 22, 행 3:13.

- A. 영광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표현이다 — 행 7:2, 엡 1:17.
 - 1.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의해 산다면 신성한 영광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 엡 4:18, 벧후 1:4.
 - 2.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의해 살수록 더욱더 교회 안에 신성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 엡 3:21.
 - 3. 이 영광의 표현이 주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되심이다.

- B.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은 주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 눅 24:26, 롬 6:4, 고후 3:18, 엡 3:21.
- C. 교회는 이러한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 산출되며,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 — 요 14:2, 15:1, 4-5, 16:21.
- D. 열매 맺는 일에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의 연속이다 — 요 15:8.

VII. 교회생활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다 — 엡 3:16-21, 4:16, 5:27.

- A.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생활을 열어 주는 열쇠는 생각의 영이다 — 엡 4:23.
 - 1. 우리가 생각의 영을 따라 산다면, 교회생활 안에 신성한 성품의 표현이 있을 것이다 — 엡 4:24, 골 3:10.
 - 2.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과 하나님의 표현을 지닌 단체적인 한 백성이 될 것이다.
- B.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는 우리의 미덕들 안에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 — 엡 4:2-6.
- C. 교회생활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러한 생활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통해 사시는 생활이다 — 빌 1:20-21상.
- D. 수 세기 동안 주님은 그러한 교회생활을 고대해 오셨다 — 엡 1:5, 9.
 - 1. 우리는 조만간 이러한 교회생활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완전히 실행되기를 기도한다 — 골 1:9, 4:12, 마 6:10.
 - 2. 이 땅 도처에서 진정한 교회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그러한 표현을 보시고 만족을 얻으시기를 바란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교회를 건축하심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시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이지 어느 한 국가 또는 어느 한 도시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을 반석으로 간주하셨다(비교 16절).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며,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가 건축되는 바로 그 반석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곧 온 우주 안의 유일한 교회이다.

우주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임

우주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신다(엡 4:4).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라면 그것은 비정상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 개라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그를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은 셀 수 없이 많은 ‘몸들’로 나뉘어 있다. 이러한 ‘몸들’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른바 교회들이다. 각기 다른 모든 ‘교회들’이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몸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기괴한 것이다. 오늘날의 상황은 이렇게 비정상적이지만, 확언하건대 그리스도의 몸은 유일하게 하나이다. 머리가 하나요, 몸도 하나이다. 이 한 몸은 절대로 어떤 특정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한 몸은 우주적인 교회, 즉 전체로서

의 교회여야 한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유일하시며, 몸인 우주적인 교회 또한 유일하다.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지방 교회들로 이루어짐

유일한 우주적인 교회, 즉 한 몸은 모든 지방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다. 수천 개의 지방에 교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다 함께 유일한 우주적인 교회를 구성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다만 우주적인 교회의 일부분일 뿐이다. 우주적인 교회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지방 교회들은 다만 이 한 몸의 지방적인 표현들이다.

모든 지방 교회들이 유일하고 우주적인 교회를 구성한다. 사도행전 15장 41절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말하며, 로마서 16장 4절은 이방인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언급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말한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말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따르면, 아시아 한 지방에는 최소 일곱 개의 지방 교회들이 있었다. 우리는 신약에서 많은 지방에서 교회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교회들은 다 함께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로 간주된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육대주에 대략 육백 개의 지방 교회들이 있다.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함께 단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인 것이다.

믿는 이들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생활함

믿는 이들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서,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님은 우주적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은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주님은 만약 당신과 동료 믿는 이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교회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교회는 틀림없이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교회이다. 만약 서울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서울 교회에게 말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부산에 있다면 부산 교회에 가야 하고, 홍콩에 있다면 홍콩 교회에 가야 하고, 만약 뉴욕에 있다면 뉴욕 교회에 가야 한다.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를 말해야 하는 교회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이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방적인 표현들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방적인 표현들이다(고전 12:27, 엡 2:22). 몸은 단 하나이지만 많은 표현들을 갖고 있다. 우주적으로는 모든 교회들이 한 몸이고, 지방적으로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우주적인 몸의 지방적인 표현이다.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몸이 아니며 단지 몸의 일부분이다. 그것은 몸의 지방적인 표현이다. 서울에 있는 교회는 몸 전체가 아니며 몸의 지방적인 표현으로서 몸 전체의 일부분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은 모든 지방 교회들로 구성됨

그리스도의 한 몸은 모든 지방 교회들로 구성된다(엡 4:4).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은 “내가 ...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교회는 단수인데, 이는 그것이 분명 우주적인 교회임을 가리킨다. 하지만 성경은 종종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교회들’ 곧 시리아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한다. 어떻게 해서 성경은 처음에는 한 교회를 언급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교회들을 말하는가? 그것은 한 교회, 즉 우주적인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총체이고, 모든 교회들은 유일한 우주적인 교회의 지방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참된 터

이제 우리는 무엇이 교회의 참된 터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터는 건물이 세워지는 부지를 의미한다. 모든 건물은 특정한 땅 위에 세워지는데, 그 땅이 바로 건물이 건축되는 터이다. 교회는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로 확산되어 왔다. 모든 국가들에서 교회는 합당한 터 위에 세워지고 있다.

지방의 터 — 한 도시, 한 교회

교회 건축을 위한 합당한 터는 지방이라는 터이다. 교회가 한국으로 확산될 때, 맨 처음 도달한 곳은 서울이었다. 교회는 지금 서울에 건축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교회의 터가 되었다.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이름이 없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마치 달과 같다. 달은 어떤 특정한 이름이 없으며, 달의 이름은 다만 달이다. 우리는 달을 미국 달, 중국 달, 한국 달, 또는 독일 달이라고 이름 짓지 않는다. 많은 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달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울에 있는 달이나 오사카에 있는 달이나 상하이에 있는 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달들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많은 도시들에 나타난 하나의 달을 의미한다.

도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터이다. 따라서 교회가 도시를 터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따라 교회를 지칭할 수 있다(계 1:11). 예를 들면, 여러분은 서울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와 내내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살기 때문에 애너하임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다른 도시들에서 왔다. 우리는 이 도시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각각의 교회들을 지칭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상 다만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가 많은 도시들에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한 교회이다.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교회들 안에 있는가, 다만 한 교회 안에 있는가? 합당한 대답은 지방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교회들 안에 있지만, 우주적으로 말한다면 모두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가,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는가? 현명한 대답은 “나는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이다. 우리는 로마 교회에도 영국 교회에도 미국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있지 않다. 우리는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다. 우리가 지금 서울 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비록 나와 내내는 애너하임에 살지만, 서울에서 성도들과 함께 머무르는 동안은 우리가 애너하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서울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여러분은 어느 교회의 일원이라고 대답하겠는가? 가장 좋은 대답은 여러분이 합당한 지방 교회의 일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고 계신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동안은 서울 교회의 구성원들이므로 우주적인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이것이 교회의 합당한 실행이다. 우리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우주적인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다. 우리가 합당한 지방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우주적으로 교회들의 구성원들이 되는 것이다.

서울 교회의 터는 서울 시이다. 따라서 한 도시에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을 수 있다(딤후 1:5, 비교행 14:23). 더구나 도시는 나뉘는 법이 없는데, 하나의 도시는 항상 한 도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지방이라는 터는 영원히 하나이다. 도시가 나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터는 결코 나뉠 수 없다. 서울에 두 개의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서울에 단 하나의 도시가 있으므로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다. 이 유일한 터는 교회를 하나 가운데 보존한다.

오늘날, 어떤 도시에 소위 ‘교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도시는 하나인데 시청은 매우 많

은 것과 같다. 만약 어떤 도시에 시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이것은 그 도시가 나뉘어 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어떤 도시든지 한 도시에는 시청이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그 도시를 하나로 보존한다. 지방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다. 이 유일한 터를 ‘지방의 터’라고 부를 수 있다. 지방의 터는 특정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항상 하나 안에서 보존되는 것을 보장해 주는 보호이다.

참된 하나라는 터 — 우주적인 한 몸

교회의 터는 다만 지방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우주적이어야 한다. 지방적으로 보자면 지방이 교회의 터이지만, 우주적으로 보자면 참된 하나가 교회의 터이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몸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는 교회의 우주적인 터이다.

한국에 있는 모든 지방 교회들이 그들 간에는 하나이지만 다른 대륙에 있는 교회들과는 하나가 아니라고 가정해 보라.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방이라는 터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몸의 하나라는 우주적인 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온 우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은 유일하게 하나이다.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등 육대주에 있는 모든 지방 교회들은 한 몸이다. 이것이 참된 하나라고 하는 우주적인 터이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독일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는 영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당신들은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니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지방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우주적으로는 그릇된 것이다. 그들은 지방적인 하나는 지킬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하나는 파괴하게 된다. 지방적으로는 지방이 교회의 터이지만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하나가 교회의 터이다. 따라서 하나에는 지방적인 면과 우주적인 면이 있다.

지방적인 행정과 우주적인 교통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생활의 합당한 실행과 관련된 또 다른 두 가지 항목들 곧 지방적인 행정과 우주적인 교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합당한 교회생활 가운데 교회의 행정은 지방적이지만 교회의 교통은 우주적이다.

행정은 지방별로 분리되며 동등함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은 모든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행정으로부터 분리된다. 더 나아가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행정은 동등한 지위에 있다. 어떠한 교회도 행정에 있어서 다른 교회보다 더 높거나 낮지 않다. 어떤 국가의 정부든지, 거기에는 상위 기관이 있고 하위 기관이 있다. 가장 높은 것은 중앙 정부이고, 그 아래 각 도나 주(州) 정부가 있고, 그 아래 시 정부가 있다. 이렇게 여러 수준으로 이루어진 정부는 피라미드에 비유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가장 높은 단계이며, 도나 시 정부는 더 낮은 단계에 있다.

그러나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동일한 수준에 있다. 로마 천주교의 경우 바티칸의 행정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다. 교황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주위를 추기경들이 차지하고 있다. 교황은 각국에 있는 로마 천주교를 통제할 수 있으며 온 땅에 많은 대주교들을 거느리고 있다. 대주교들 밑에는 주교들이 있고, 주교들 밑에는 사제들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통치 조직이며, 종교적인 계급 제도이다. 이러한 계급 제도는 유죄 판결받아야 한다. 교회생활의 합당한 실행은 온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수준에 있는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는 유일하게 한 보좌 곧 하늘에 계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보좌관이 있다. 오직 머리만이 보좌 위에 계신다. 한 머리 아래서 모든 교회들은 동일한 수준에 있다.

서울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큰 지방 교회라고 가정해 보라. 서울 교회가 한국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

들을 통제하는 것이 옳은가? 부산 교회가 한국에 있는 둘째로 큰 교회라고 가정해 보라. 부산 교회가 서울 교회 아래 있는 것이 합당한가? 이번에는 부산 인근에 부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라. 가장 큰 교회인 서울 교회가 부산 교회를 통제하고, 부산 교회는 그 인근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 옳은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종류의 성직자 계급 제도와 통제는 절대적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지방 교회들의 행정에 관하여 나는 ‘분리된’이라는 단어와 ‘동등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서울 교회의 행정은 부산이나 거창의 행정으로부터 분리된다. 이 교회들의 행정들은 분리되며 각각 동등하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의 행정이라 할지라도 서울 교회의 행정과 동등하다. 만약 내가 서울 교회의 장로라고 한다면, 서울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또한 작은 교회들의 장로들도 서울 교회가 가장 크고 오래된 교회이니 서울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합당한 교회생활의 실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는 각기 고유한 행정이 있고 그 행정은 다른 모든 교회들과 분리된다. 또한 그 행정은 다른 모든 교회들과 동등하다. 서울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 온 반면에 어떤 작은 교회는 겨우 이틀 전에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두 교회의 행정은 분리되어 있고 동일한 수준에 있다. 교회의 행정은 지방적이다.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또 얼마나 성숙했든지 상관없이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를 통제할 수 없다.

교통은 우주적으로 하나임

비록 교회의 행정이 지방적으로 분리되며 동등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교통은 우주적으로 하나이다. 교통에 있어서는 어떠한 분리도 없다. 온 땅에 오직 하나의 교통만 있으며 이 교통은 우주적으로 하나이다. 교회의 교통은 단순히 한 국가 안에서만 하나가 아니라 온 우주 안에서 하나이다. 영국에 한 교통이 있고 미국에 또 다른 교통이 있거나, 독일에 또 다른 교통, 중국에 또 다른 교통, 그리고 일본에 또 다른 교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 국가의 각 도시에 개별적인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온 우주에는 단 하나의 교통이 있다.

이 교통은 사도들의 교통이라고 불린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오순절날 주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체들이 된 삼천 명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렀다고 말한다. 교회 안에서 교통과 가르침은 모두 우주적으로 하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교회들에서 단 한 가지, 곧 교회의 산출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만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만약 어떤 다른 가르침이 들어온다면 반드시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딤후 1:3-4).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가르침, 즉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받으며 오직 하나의 교통, 즉 사도들의 교통을 가진다.

이 교통은 주님의 상에서 표현된다. 우리는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에 참여하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피의 교통에 참여한다(고전 10:16). 주님의 몸과 피는 유일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통 또한 유일하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되었다(고전 10:17). 그러므로 이 우주적인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다. 이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교통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도들의 교통이며, 삼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통이다. 그러한 교통은 반드시 우주적이어야 한다. 행정에 있어서는 교회들이 지방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교통에 있어서는 우주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장로 직분

장로들은 믿는 이들 위에 균립하지 않음

장로들은 믿는 이들 위에 균립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추구하

는 것과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 앞장서는 본과 모범이 되어야 한다(마 20:25-28, 벰전 5:1-3). 그들은 자신들이 장로들로서, 믿는 이들 위에서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종류의 관념은 그릇된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이 동등하다고 말씀하셨다. 장로들을 포함하여 우리는 모두 형제이다. 우리 중에는 주님 한 분 외에 어떤 주(主)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주님밖에 없고, 오직 한 지도자밖에 없다. 이 유일한 지도자이신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내자요, 지시자요, 감독이시다. 장로들은 믿는 이들을 통치하는 지배자가 아니며 여전히 동일한 형제이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 앞장서는 본과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터와 실재

지방이라는 터는 하나(oneness)의 외적인 표현이다(고전 1:12-13). 우리가 서울에서 만나는 동안, 서울 시는 우리의 터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하나일 뿐이다. 하나의 내적인 실재는 그 영이다(엡 4:4).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영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하나를 지키기 위해 지방이라는 터를 가지고, 내적으로는 몸의 하나를 위해 그 영에 의해 산다. 만약 우리가 그 영이 없이 단지 지방이라는 터만 가진다면 내적인 실재가 없이 그저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지방의 터와 그 영의 내적인 실재를 모두 가져야 한다. *(교회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 78-93쪽)*